

# 현장에서 바라본 경제위기와 그 해법은? <II>

△ 사 회 : 오동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발 표 : 정남구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일 시 : 2008년 11월 11일(화) 저녁 7시
- 장 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주 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 “한국경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가?”

정남구(한겨레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미국발 금융위기는 자산버블에 기초한 성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자산버블 붕괴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부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국제 금융 시스템이 재가동되기 시작해도 미국의 소비, 미국의 경상적자를 보전하는 신흥국의 달러 공급에 의존하는 기존의 세계경제 성장 구조가 순조롭게 복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금융시장은 세계적인 자산거품 붕괴의 직격탄을 맞았고, 이로 인해 외화유동성 위기와 자금시장 경색에 직면해 있다. 실물 부문의 악화는 이제 초기단계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기부양책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치유하기보다는 더 큰 위험을 부를 정책들을 펴고 있다. 이러다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

## 1. 미국 자산버블의 붕괴와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

-9.11 테러 뒤 초저금리 정책과 세계적인 집값 급등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왜 주식회사 미국의 몰락이라 하는가?

; 레이저노믹스에 따른 감세정책과 주기적인 주가 거품 형성 및 붕괴, 가계 저축률의 지속 하락(1980년대 10%대에서 최근 1% 미만으로)

-주택 거품 붕괴는 아직 진행형이다

-주가 하락으로 가계 소비여력도 급감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

;부실 규모 확정, 부실의 제거 및 금융회사 자본 확충을 통한 신뢰의 회복, 실물 부문의 불확실성 제거

-달러 가치의 수수께끼

## 2. 한국, 외화유동성 위기

- 주식시장의 외국자본 이탈
- 경상수지 적자 전환
- 은행의 외화차입 만기 연장 어려움
-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자본 흐름
- 외환보유고는 과연 충분한가?
  - ;한-미 통화스와프의 한계
  - ;정부의 외환시장, 외화자금 시장 관리 능력은?

## 3. 한국경제가 걸어온 길

- 모터사이클 경제(미국의 소비, 중국의 투자)에 기댄 성장
-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 경제(외환시장 정책, 감세정책, 저금리정책)
  - ; 기업과 금융회사의 수익 급증, 2003~2007년 기간의 주가 상승
- 자산 버블에 기반한 소비 경제(저금리 정책, 은행의 소매금융 확대)
  - ; 주택가격 급등, 가계부채 급증, 가계 저축률 지속 감소

## 4. 금융시스템에 잠재한 위험 요소

- 달러가 급한 은행들
- 시장성 수신(은행채, 시디)의 급증에 기반한 대출구조, 은행 자금사정 악화
- 나빠지는 실물 경제
  - ;가계의 소득 부진, 자산가격의 하락
  - ;수출, 해법이 되기 어렵다
-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위험 요인
  - ;급증한 가계부채, 떨어지는 집값, 가계파산 증가 가능성
  -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 ;건설회사 유동성 문제

## 5. 정부 정책은 어디로?

-정책의 우선 순위는?

- ; 1) 외화 유동성 위기 해소
- ; 2) 은행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 ; 3) 제한적인 실물경기 침체 방어
- ; 4)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 거품에 의존한 소비 경제의 혁신

-통화정책의 한계(외환시장 영향 및 유동성 함정)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의 효율성 문제; 건설경기 부양?

-감세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정부정책이 가고 있는 길?

- ; 위험관리보다는 성장
- ; 저금리, 재정확대, 건설경기 부양 => 하늘로 치솟은 그네 붙잡기
- ; 원칙없는 관치금융, 잠재 위험 키우기

-정부의 상황인식 및 정책 능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심각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 ; 국제금융시장 신용경색의 장기화, 외화 유동성 위기 해소 지연
- ; 거품의 유지 및 잠재 부실의 확산 =>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 외화 유동성 위기 확산과, 전방위적인 경제 위기